

言語學에 있어서의 科學的 說明

李 廷 玟

(言語學科 副教授)

1. 言語理論으로서의 文法과 科學的 說明

인간이 日常的으로 사용하는 自然言語를 연구대상으로 삼는 言語學이 人文科學에 속하느냐, 또는 社會科學에 속하느냐, 아니면 自然科學에 속하느냐 하는 문제 자체에 대해서도 言語學을 보는 觀點에 따라 그 답이 달라진다. 실제로 歐美의 대학들은 이를 人文·社會·自然 중의 어느 한 과학분야에 마음대로 소속시키고 있다. 언어연구를 종전처럼 문헌학적인 것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최근의 견해에 따라 언어를 인간의 논리나 인식과 관련하여 연구하는 학문분야로 보는 사람들은 언어학을 인문과학에 넣고 있다. 언어를 하나의 사회 제도나 문화의 한 요소로 보고, 언어학을 變異可能한 인간의 언어행위에 관심을 갖는 연구의 분야로 볼 때에는 社會科學에 소속시키게 되며, 언어가 뇌신경학적으로 뇌의 기능과 긴밀한 관련을 갖는 측면이나 調音·聽取에 있어 生理·해부학적인 관련을 갖는 측면, 또는 言語音聲의 물리적 성격을 규명하는 音響學的인 측면, 또는 언어연구의 記述방식에 있어서 數理的인 개념과 記號를 많이 쓰는 측면을 강조하여 언어학을 자연과학의 분야에 넣기도 한다.

언어와 언어학은 위의 어느 관점에서든 볼 수 있으며, 어느 한 가지 입장만이 옳다고 잘라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여기서는 언어가 인간의 논리·사고·인식의 측면과 불가분의 관련을 가지고 있고, 언어가 온전한 상태로서는 自然物이기가 어렵다는 관점에서 언어학을 인문과학에 소속시키는 입장을 일단 가정하고 들어가려 한다.

그런데 언어학의 관심사는 본질적으로 인간언어에 대한 規則(rule)들의 체계를 세우는 데에 있다. 이것을 언어이론으로서의 文法이라고 부른다. 그러한 文法은 言語現象을 說明하는 原理들인 규칙의 集合인데, 그러면 어떠한 점에서 文法이 언어현상을 설명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언어학의 生成理論에서는 일단의 生成규칙을 설정·적용하여 나오는 문장의 기본 골격에다 필요한 낱말을 넣고, 거기에 필요한 변형규칙(또는 대응규칙)을 적용하여 실제 發話에 쓰는 表面구조를 얻어내기 때문에, 추상적인 구조의 분석과 導出관계로써 주어진 언어의 發話(utterance)의 集合에 대해 說明을 하고 있다고 한다. 生成文法の 體系는 어떠한 형식으로든 假說的 構成物인 문장이니 동사니 명사니 하는 문법적 범주나, 또는 基底音韻이니

音韻資質이니 하는 것들과 意味成分들 및 生成規則을 가지고, 한 언어의 문법적인 모든 문장 그리고 문법적인 문장만을 생성하는 導出體系로서 意味표시와 形態(音聲표시) 사이의 연결을 시켜준다는 점에서 자연과학에서 주로 논의되는 演繹·法則的 說明模型과 흡사한 점이 있다. 문법의 규칙이나 制約을 통해서 이를 어기지 않고 생성된 연결체만이 문법적인 것이 되고, 이를 어기어 생성되는 것은 非文法的인 것이 되기 때문에 그 구별을 함으로써 어떤 연결체가 왜 비문법적인가를 明示的으로 보여주는 것이 된다. 더우기 導出과정의 여러 단계의 構造 속에서 특별히 어떠한 규칙이나 제약의 위배가 있었는가를 봄으로써 그 非文法的인 연결체의 非文法性의 성격을 진단하여 설명할 수 있게 된다. 물론 문법규칙의 체계를 구성함에 있어서, 그 규칙들을 통해 나오는 연결체가 과연 그 언어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발화의 일부인가를 검증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 체계는 순연한 연역적 論理體系와는 구별되어 그 經驗的 性格을 뚜렷이 갖는다. 언어자료에 맞지 않을 때에는 그 규칙을 고쳐야만 하는 것이다.

자연과학의 연역·법칙적(deductive-nomological) 설명모형에 비추어 볼 때 (Hempel 1966 참조), 언어이론에서 法則(law)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規則(rule)이나 하는 의문이 나올 수 있다. 全稱命題나 命題圖式으로 표현되는 (自然)法則들은 그 법칙이 주축이 되어, 始發(initial) 條件들을 설명을 원하는 일의 상태에 연관지어 주는 역할을 한다. 원인적(또는 인과적(causal)) 설명이란 그러한 始發條件들 중의 하나(즉 原因)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법칙을 생략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모형에서 말하는 바와 같은 자연법칙은 원칙적으로 어길 수 없는 것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電子(electron)들은 한 原子(atom) 안에서 같은 量子(quantum) 상태를 차지할 수 없다고 하면, 차지하지 않는 것인데 반해서, 문법의 규칙은 어길 수가 있다는 데에 좀 차이가 있다. 여기는 과정이 고의이든 실수이든간에 이는 자연의 原理와는 대조되는 점이다. 다음과 같은 연결체는 우리말 문법의 규칙을 어겨 나온 것이다.

*먹었다 를사과 가철수

이는 우리말에서 허용될 수 없는 연결체지만 우리말의 낱말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연결의 규칙을 어긴 것이라는 것을 우리말을 아는 사람은 바로 판단할 수 있다. 허용될 수 없는 연결체지만, 규칙을 어겨 일단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이 자연현상의 원리와 얼마간 차이 나는 점이다.

어떤 언어의 문법규칙이란 그 언어를 모국어로 삼는 사람들의 精神(mind) 속에 內面化되어 있어서 잠재적인 앎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언어는 바로 인간의 認知(cognition)와 연관되어 있고, 언어학은 바로 心理學 및 神經生理學的인 연구와 직결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에 따라서는 언어학을 認知心理學的인 한 下位분야로까지 생각하고 있

다. 그러나 자기 모국어룰 할 줄 아는 능력은 모국어의 문법규칙을 무의식적인 次元에서 아는 것이어서, 의식적으로 알아서 준수하는 교통규칙 등 윤리적인 규범이나 사회적 법규에 바탕을 둔 규칙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물론 언어에 있어서도 言語遂行上の 傾向, 태도, 信念 등 인간행위의 요소들이 작용하는 것을 무시할 수 없고 그러한 측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학자들도 없지 않다. 그러나 좀 더 언어의 基本的인 구조에 관심을 갖고 그것이 인간의 정신구조를 이해하는 데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까를 밝히고자 하는, 깊이 있는 언어이론을 추구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다.

科學的 說明이란 어떤 現象에 대해 『왜?』라는 질문을 던질 때 그에 대해 이치에 맞는 응답을 하는 것이지만 왜라는 질문은 한없이 꼬리를 물고 계속해 나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사람으로서는 認識 또는 과학적 지식의 한계 때문에 대답이 막히는 상황에도 다달을 것이다. 이에 科學이 進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예컨대, 한국어말의 「내가 잠은 새」에서 왜 「내가 잠은」이 「새」 뒤에 오지 않고 앞에 오는가? 이같은 질문에 대해 한국어에서 모든 명사수식어가 명사 앞에 오는데, 「내가 잠은」이 그러한 명사수식어에 속하기 때문이라고 한국어의 수식어와 명사 사이의 구조적 특성을 밝혀 주어도, 거기에 또 「왜?」라는 질문을 다시 던질 수 있고 (이에 대해 앞 뒤 둘 중의 선택 가능성 가운데서 앞에 오는 가능성이 선택된 것이며, 이는 전치사 (또는 후치사)와 명사구간의 관계, 본동사와 조동사간의 관계 등 더 넓은 구조들의 관계에서 답을 구해야 하고) 끝없이 이어 물을 수가 있다.

언어에 관한 궁금증은 이와 같이 구조를 밝히는 생성규칙들의 運用과정을 보여줌으로써 풀린다고 보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그 보다는 언어의 發話가 어떠한 機能으로 쓰이는가 하는 것이 더 決定的이며 그와 같은 쓰임새가 構造를 결정한다고 보는 입장이 있다. 이 두 입장 사이에는 약간의 긴장상태까지 있을 지경이지만, 두 입장이 그렇게 상호배척적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相補的인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철저한 言語構造의 分析은 언어의 성질을 다분히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 싶다. 더우기 인간언어의 普遍的 성질은 여러 언어에 대한 올바른 構造的 分析을 통해서 밝혀진다고 본다. 그러한 分析은 우리에게 새로운 앎을 제공하는 것이며, 결코 뜻없는 순환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自然현상에 대한 構造的 分析도 그 현상에서 시작하여 그 현상으로 그치는 것이라 할지라도, 분석된 구조내용은 우리에게 새로운 앎을 주고 앞으로의 현상에 대해 豫測을 가능케 한다고 본다. 언어의 문법규칙도 그와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그러한 의미에서 단순한 記述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같은 언어 현상에 대해서 다른 說明方式으로서의 여러 文法들이 주어질 때, 그것들을 어떻게 비교 評價하고 選擇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일어난다. 하나의 經驗的인 事實에 대해서는 어느 경우에도 단 하나의 참된 說明이 있다는 것이 經驗科學의 원리인데, 그러한 觀點에서 보면 주어진 言語資料, 言語現象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참된 文法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느 하나가 참된 것으로 판명되기 이전에는 그에 가장 가까운 文法을 내

놓도록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고, 理論의 評價에는 簡潔性, 一般性, 自然性 등의 基準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첫째 주어진 언어자료를 生成할 수 있는 文法이라고 한다는 것은 지극히 초보적인 要件이다. 최근의 언어이론들에서는 集合論과 記號論理를 援用하는 明示的이고 形式的인 說明(formal account)을 試圖하고 實行하고 있기 때문에, 간결성의 척도에서 전보다 크게 발전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사용된 記號의 수를 세는 尺度까지 제의되었으나, 단순히 잉크를 절약하는 經濟性과 진정한 一般化를 期하는 簡潔性은 구별되어야 한다. 一般性의 문제는 간결성과 表裏관계에 있으며, 되도록 여러 언어의 현상을 포괄하고 含蓄적으로는 모든 언어의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한다는 목표를 갖는다. 그리고 自然性의 문제는 基底要素들의 體系나 規則들의 體系 등을 설정함에 있어 均衡, 무리없음, 특별나지 않음을 指向하는 기준으로서 중요하지만 客觀性을 부여하기가 그다지 쉬지 않다는 점을 지니고 있다.

종래의 變形生成文法 이론은 形式性的의 추구에 있어 革新的인 계기를 가져 왔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언어자료를 처음부터 理想化된 話者·聽者로 구성된 理想的인 同質的인 言語社會의 구성원의 直觀에 의존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들어가는 경우에는(Chomsky처럼) 理論이 지나치게 莫强하며 反證할 길이 없다는 문제를 끌어 안는다. 恣意的인 資料制限도 있을 수 있고 形式體系 안에서 맴돌고 마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언어 사용과 관련된 언어행동의 경험적 바탕을 배제하지 않는 이론에 관심을 갖게 마련이다. 후자에 바탕을 두어, 같은 생각을 사람들은 出身地域 또는 社會階層에 따라 어떻게 달리 發話하는가, 왜 그리 달리 發話하게 되는가, 그리고 言語들 또는 方言들이 서로 마주칠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는 등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社會言語學의 분야도 활발한 편이다. 이 연구에는 統計學的方法과 社會學이나 社會心理學에서의 說明을 援用해야 할 경우가 많다. 한 사람을 놓고 보아도 文法性에 대한 판단이 그렇게 모든 경우에 구별을 선명히 잘 해 주지는 않는다. 거기에 개인에 따른 차이, 지역방언, 사회방언에 따른 차이 등을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그러한 차이에 관심을 두는 학자들도 많이 있다는 말이다. 표준어와 자기 본래의 方言 양쪽을 잘하는 사람의 경우도 친한 同鄉 사람, 가족 사이에서는 자기 방언을 쓰고, 그밖의 경우에는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는데, 이와 비슷한 현상들은 많이 있으며, 그러한 현상들에 대해서도 설명의 原理를 찾고자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언어현상을 설명하는 원리를 찾는다는 언어학의 本領이 어디서 어디까지냐 하는 의문이 나오게 마련이다. 그 本領이 되는 대상은 人間의 모든 가능한 言語들이다. 個別言語(各國語)들을 모아 놓은 것이 人間言語이기 때문에 실제 연구에 있어서는 個別言語를 떠나서 人間의 言語를 논할 수는 없게 되어 있으므로, 최근의 이론들에 있어서는 대개 자기 모국어의 바탕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그리고 소리와

의미 사이를 맺어 주는, 다시 말하면, 音聲·音韻構造와 統辭·意味構造를 밝혀 주는 규칙들의 체계로 이루어지는 文法을 특정 언어를 기초로 하되, 다른 언어들의 문법규칙과 비교하면서 記述해 나갈 때 一般의인 原理에 도달하게 된다. 그리고 言語의 성질상 연구에 있어 論理學·心理學·社會學 등과 인접된 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언어의 變化를 通時的 觀點에서 비교연구하려 할 때에는 자연히 歷史學的인 原理들과도 통하게 되어 있다. 이 경우에는 文獻資料에 대한 分析, 表記와 실제 언어사이의 관계 규명 등에 대한 과학적인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의 언어이론은 美國을 중심으로 西歐·東歐는 물론 日本·韓國 등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학계가 호흡을 같이 하면서 발전되고 있으며, 비교적 공동의 관심사와 대체로 공통된 이론의 틀 안에서 논의를 같이 할 수 있는, Kuhn의 이른바 科學共同社會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 1981년 여름에 우리나라에서 열린 서울 국제언어학회의와 1982년 동경에서 열린 제 13회 국제언어학자회의는 동서양의 언어학자들이 하나의 틀 안에서 자리를 같이 하는 대규모의 것이었다.

언어에 대해 왜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역사는 동양에서는 印度의 「파니니」라는 학자의 文法(B.C. 4세기경) 이상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서양에서는 고대 회랍의 「플라톤」에 까지 거슬러 올라 가나, 현대적인 학문으로서의 언어학의 기반이 서기 시작한 것은 「스위스」의 언어학자 「소쉬르」가 1900년대 초 언어의 構造에 대해 많은 답을 던진 이후부터라고 꼽는 사람이 많다. 그 뒤 1950년대 후반 Chomsky의 生成이론으로 언어연구는 새로운 轉機를 맞게 되었다.

그러나 인간이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궁금증에는 한계가 없고, 반면에 인간의 앞에는 스스로 制約이 있다. 때문에, 오늘도 언어의 성질을 좀 더 파헤치고 가려진 神秘의 비밀을 좀 더 걷어치우고 알아보려는 노력이 그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언어연구는 부단히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2. 意味分析에 있어서의 說明의 문제

2.1. 자연언어의 의미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의미론에는 접근방식에 따라 여러가지가 있음을 다양한 그 이름에서도 엿볼 수 있다. 認知(cognitive)의미론, 原型(prototype)의미론, 틀(frame)의미론 등이 있는가 하면, 選別目錄(checklist)의미론, 形式(formal)의미론, 진리 조건적 의미론, 모형 이론적(model-theoretic)의미론, 가능 세계 의미론(possible worlds semantics), 상황(situation)의미론 등 가지가지 이름의 의미론이 있다.¹⁾

다양한 관점과 접근방법의 의미론들 가운데 근래 크게 두 갈래의 경향을 볼 수 있다. 첫

1) 이 가운데 '틀 의미론', '선별목록 의미론'은 Fillmore(1975)등의 논문에 나타난 이름이다.

제 심리적인 측면의 분석 경향과 둘째 논리적(또는 數理的) 측면의 분석 경향이 그것이다. 이 두 경향은 서로 경쟁적인 입장을 가지고 발전하고 있는 인상을 주지만, 언어학의 의미론은 이 두 측면의 분석을 합성하여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이 논문의 요지다.

몬태규 의미론으로 대표되는 논리적 입장은 模型(model)에 따른 문장의 진리치와 문장들 사이의 含意의 개념을 성격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입장은 合成性(compositionality)의 원리를 채택하여, 한 표현의 의미는 그 구성성분들(과 그 표현을 형성하는 통사규칙)의 의미들의 함수(function)라고 본다. 內包(intension)와 外延(extension)의 구별을 이용하나, 내포는 의미에 대한 集合論的 代用物일 뿐 직관적인 또는 心理的인 實體는 아니다. 이 입장에서는 形式的 또는 數學的 精密性, 一慣性 및 優雅性(elegance)에 관심을 갖고, 心理的 過程이나 心理的 實在에는 별 관심을 갖지 않는다.

한편, 심리적 측면의 의미분석에서는 映像, 記憶, 知覺, 理解, 思考 등 認知(cognition)의 모든 부면을 통해서 의미를 다루려고 한다. 이 입장은 언어 의미의 체계를 순수히 '논리적'인 것으로나 순수히 '物理的'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 언어 의미의 체계는 우주를 있는 그대로 표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2.2. 그러면, 이 두 갈래의 입장이 모두 필요할뿐더러 이 둘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의미현상을 다루어 나가야 될 것임을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살펴 보기로 한다.

Carlson의 분석을 끌어다 쓴 Dowty (1979: 80~87)의 다음과 같은 예문에 대한 고찰을 살펴 보자.

(1) John discovered fleas on his dog for six weeks.

이 문장에서 discover는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Vendler의 이른바 achievement verb로서) 기간을 나타내는 for...표현과 일차적으로는 잘 안 맞지만, 똑같은 베틀이 아닌 새 베틀들을 6주동안 몇번이고 거듭해 찾아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해석의 논리구조를 보면,

(2) $(\forall t: t \in \text{six weeks}) AT (t, \text{BECOME} [\text{John knows that } (\exists x [R(x, f) \wedge x \text{ is on his dog}]])$
(f는 fleas라는 종류, R=realizes)

(3) $\dots t_{i-1} \quad t_i \quad t_{i+1} \dots$
 $\quad \quad \neg F(x_1) \quad F(x_1)$
 $\neg F(x_2) \quad F(x_2) \quad \quad \quad x_1, x_2: \text{별개의 베틀(그러나 같은 종류)}$

인데, 여기서 한 時點 t에서 다음 시점으로 흐름에 따라 X의 값이 같은 종류지만 다른 개별적인 베틀들로 달라짐으로 해서 모순을 피하게 된다. 예컨대, t_{i-1} 시점에서 x_2 베틀이 代入된 BECOME문장이 참이 아니던 것이 t_i 시점에서 참이 되고 t_i 시점에서 x_1 베틀이 代入된 BECOME문장이 참이 아니던 것이 t_{i+1} 시점에 가서 참이 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논리구조다.

이는 진리와 指示를 통한 明示的인 의미분석이다. Carlson은 이와 같은 達成(achievement) 동사와 持續(durative)부사의 분석에서 實現에 대한 變項을 묶는 존재양화사를 두는 것은 不定복수명사구의 의미 때문이 아니고 동사의 의미 때문인 것으로 취급한다. 이러한 분석은 관사(定·不定 막론)가 없고, 복수표지마저 隨意的인 한국어에도 적용되리라고 본다.

그러나 Dowty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문장 (1)은 John이 6주 기간 동안 문자 그대로 매순간에 새 벼룩을 만났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매일 잠자러, 학교에, 또한 이틀씩 주말 여행에 갔을 수 있고, 심지어 첫 주와 마지막 주 외의 한 두 주 동안은 여러 날 새 벼룩을 못 찾았을지라도 문장 (1)을 발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적절하게 발화하는 데 연관된 필요충분한 빈도와 時區間들을 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지속부사류 for six weeks 등에서 全稱양화사로 定量된 순간들은 애매하게 표시되고 맥락에 의해 결정되는 ‘연관성 있는 心理的 순간들’과 같은 것이겠다. 그러나 이 순간들의 포착을 위한 연관성(relevance)의 문제가 좀더 규명되어 맥락과 관계된 현실에 대한 우리의 知覺방식이 밝혀지고 이에 맞는 記述방식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영역이 심리학과 논리학이 부딪치는 곳이다.

2.3. 논리학과 심리학이 만나는 또 하나의 영역은 前提(presupposition)의 영역이다. 다음 예를 보자.

- (4) The King of France is bald.
- (5) The King of France is not bald.
- (6) There is a King of France.

특정記述(definite description)에 포함된 존재를 含意(entailment)로 취급한 Russell에 반대한 Strawson은 먼저 ‘前提된’ 명제의 지위가 그것과 구별되는 含意된 명제나 단언의 지위와 다르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느꼈을 것이다. 그러한 느낌은 여러가지 언어자료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否定에 따른 결과가 함의 때와 전제 때가 다르고, 이를 形式에서 다루기 위해 진리치 공백 또는 3值논리가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전제의 존재를 부정하나 그 현상들은 계속 논의되고 있다. 만일 문장의 진리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의미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함축(implicature)이든 은유적 의미이든, 그 존재가 느껴지고 언어적 소통에 이바지하는 한 여하간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複文의 전제 投射문제가 Karttunen과 Peters(1979) 및 Gazdar (1979) 등에 의해 많은 진전을 보았으며, Stalnaker (1980)가 Gazdar의 투사문제 해결책을 충분히 평가하면서도 Gazdar가 전제 자체의 성격을 규정짓지 않고 ‘마치 잠재적 전제가 어휘부와 통사부에 의해 주어진 어떤 것’인양 나아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우리는 이론의 구성을 위해 때로 많은 것을 가정할 채 나아가야 하지만, 동시에 그 이론이 경험적으로 타당한 것이 되게 하려면 사실을 파헤치고 이에 맞게 해 주어야 한다.

사실성 전제에도 동사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드러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다음 예들을 살펴 보자.

(7) Mary regrets that she failed.

(8) Mary does not regret that she failed.

(9) Mary failed. (Kiparsky & Kiparsky 1970에서와 같은 사실성 전제)

예컨대, regret 같은 동사는 그 보문의 사실성이 매우 강하게 전제되거나 discover 등의 보문으로 가면 사실성의 전제가 약화된다. Know라는 동사도 regret보다는 전제가 약한데, 우리말의 ‘알다’는 보문에 목적격표지 ‘을’을 취하면 전제가 있고 방향표지 ‘-으로’를 취하면 전제가 없는 것을 보아도 이러한 認知에 관계된 동사의 전제가 감정적 반응을 나타내는 regret 등 동사의 전제보다는 약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다음을 보자.

(10) 그 아이는 누나가 죽은 것을 알았다.

(11) 그 아이는 누나가 죽은 것으로 알았다.

Haiman (1978)이 ‘조건절은 話題다’라고 주장하면서 조건절과 화제 모두 주어진 정보를 갖고 있다고 했으나, 여기에도 주어짐의 정도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조건절은 화제보다 주어짐의 정도가 약하고 또한 조건관계라는 다른 뜻을 가지므로 양자가 동일시될 수 없다(Lee 1982 참조). 이러한 차이가 현실적인 것이라면 심리학적 실험을 통해서(Greenfield & Zukow 등과 같이), 또는 통사상의 증거들 통해서 좀더 분명히 밝혀지고 記述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에 따라 진리치나 적정성(felicity)의 부과문제도 어떻게 달라지는지 함께 따져야 할 것이다. 다분히 심리적인 데서 출발한 전제의 도입으로 엄밀한 二値논리가 흔들렸으며, Osgood (1971)같은 심리학자는 전제를 ‘새로운 心理言語學的 개념’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많은 認知心理學者가 이에 관해 심리학적 실험을 하고 있음은 흥미있는 경향이다.

2.4. 이제 어휘의미에 관한 문제로 들어 가자. 본태규의 의미규칙들은 기본어휘항목의 內包를 주어진 것으로 가정하고 들어 가는데 내포는 어떤 한 세계에서의 外延으로부터 결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체계에는 어휘의미에 대한 의의있는 취급이 없다. 다음 (12)와 같은 문장은 여러 단계를 거쳐 (13)과 같은 내포언어 定式으로 번역된다.

(12) Every man talks.

(13) $\forall x$ [man'(x) \rightarrow talk'(x)]

이 정식은 주어진 指標에서 사람이라는 속성을 가진 모든 것은 또한 말한다든 속성을 지닌다는 해석을 받는다. 여기서 비논리적 常項 ‘man’과 ‘talk’는 더 자세히 분석되지 않고 주어진 것으로서 각각 ‘man’과 ‘talk’으로 번역된다. 주어진 지표에서의 언어표현의 외연은 가정에 의해 주어지는 비논리적 기본표현의 내포들만 가지고 의미규칙들에 의해 귀환적으로(recursively) 정의된다.

그러나, 화자들은 어휘항목을 정의하는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있어 그 어휘항목을 효과

적으로 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이들 기준이 Katz에 따르면 개념내용으로서의 의미자질 일 수 있다. 그리고 語辭(term)의 내포 또한 그 어사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간주될 수 있겠다. 한편, Putnam은 외연이 개별적 화자의 심리적 상태로서의 개념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의 언어노동의 분업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고 논박한다. Putnam (1975)에 따르면, ‘금’, ‘물’과 같은 自然類(natural-kind)의 판별기준을 위해 우리는 화자들 가운데의 부분 집합인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존할 것이라 한다. 우리말에서 ‘진달래’와 ‘철쭉’이 자주 쓰이나 도시에서 자란 사람은 이 두 가지 꽃을 잘 구별하지 못한다. 이 경우, 구별을 못하는 사람들은 이들 어사의 개념을 분명치 않게 애매하게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언어의 동사, 연결사, 부정과 대부분의 명사들의 용법을 전문가들에게 물을 필요는 없다. Kripke의 이른바 ‘指示의 因果的 연쇄’를 통해 어사를 그 지시대상의 스킴은 구조나 본질(과 그의 記述)을 미처 알지 못하면서도 指稱에 사용하게 된다. 더우기 사회의 집단적이며 객관적인 외연들을 위한 사회언어학적 협동의 결과는 사회의 집단적인 심리적 상태로 개념화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다. 문법이 전체로서 하는 일은 ‘두뇌상태들로 표시’ 될 수 있는 것으로 Whitaker (1976)와 같은 신경언어학자는 보고 있다.

한편, 어휘항목의 의미에는 범주화(categorization)라는 심리적인 과정이 꼭 관련되는데, Putnam자신도 自然類 語辭의 ‘固定型(stereotype)’ 개념을 제외하고 있다. 그것은 그 어사와 연관된 관습적인 생각으로서 그 종류의 정상적인 구성원의 핵심적 자질들로 구성된다. Putnam에 있어서 그것은 修正가능성이 희박한 ‘意味標識’의 개념과는 구별된다. 후자는 관습적인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물’의 의미표지는 ‘가공물’이 아닌 ‘自然類’, 또는 ‘액체’ 등이 되겠고, ‘물’의 고정형은 ‘無色の’, ‘투명한’, ‘맛없는’, ‘목마름을 해소시키는’ 등이 되겠다. ‘물’이 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 즉 물의 외연은 H_2O 다. 고정형 속에 든 정보가 정확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의사소통을 용이하게 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으로 믿어진다. 한국어의 ‘호랑이’의 고정형은, 생물학적으로 결정되는 이들의 외연이 같다 할지라도 특히 태도에 관계된, 또는 연상적 자질들에 있어서, 영어의 ‘tiger’의 고정형과는 다를 수 있다.

通時的으로도 어사와 연관된 고정형이 달라질 수 있다. ‘pen’의 예를 들면, 깃펜에서 볼펜으로, 그리고 고정형의 변화에 따라 외연도 달라지게 되었다. ballpoint pen이 흔해져 종래의 철촉 pen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되자 ‘pen’은 ballpoint pen을 가리키게 되었다.

그러나, (비교문화적) 심리학 실험에 따르면(Rosch, 1977; Mervis & Rosch, 1981 참조), 범주들, 특히 기본級(basic level) 범주들은 恣意的이 아니다. 기본급은 抽象의 기본적인 계층적 層位를 가리키는데 예컨대, ‘가구’, ‘의자’, ‘안락의자’ 가운데서 ‘의자’의 급이 전체적으로 비슷한 모양과, 범주를 반영하는 心像과 그밖에 범주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유사한 운동신경 반응을 유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기본적이라고 말한다. 명칭이

짧다거나 빈도가 더 잦다거나 또는 기본급 효과를 넘에 있어 먼저 배우게 된다거나 하는 언어적 요인들보다 知覺—認知的인 구조적 요인들이 더 지배적인 것으로 믿어진다. 어느 層位가 기본적인냐를 결정하는 基底的 原理들(최대의 범주간 변별력, 범주내 유사성 등)은 보편적이라야 한다. 그러나 주어진 영역에 대해 기본적인이라고 판정되는 특정한 급은 '그 영역의 文化的 의의와 개인의 전문성의 수준'의 함수로서 달라질 수 있겠다. '깊음'을 통해 특정대상들을 대표하고 전체적인 범주들을 반영하는 映像(image)은 기억 속의 정보의 저장소 노릇을 하며, 저장된 명제관계로서 계층적으로 구조화될 수 있는 그 基底表示로부터 실험에 의해 그림에 가까운 실체로서 生成될 수 있다(Kosslyn, 1980).

더우기, 범주들은 '代表性의 정도 차이'에 의해 내면적으로 구조화 되어 있으며 반드시 뚜렷한 경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초점적인 색채들은 기본 색채범주를 가장 잘 대표하는 가장 좋은 예가 되며(Berlin & Kay, 1969), 여러가지 언어상의 범주들도 그러한 원형들과 정도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Ross, 1972; Lakoff, 1972). 더 나아가 우리는 조직상의 통일성을 지닌 관계개념들의 체계로서의 '틀(frame)'이나(Fillmore, 1975 참조) 영상圖式的 階層을 필요로 할 것이다(Langacker, 1982 참조).

어휘적 형태소들은 Katz나 生成意味論者들이 한 것과 같이 좀더 原初的인 의미성분들로 분석, 분해될 수 있다. 표준이론에서는 어휘항목의 의미를 형성하는 의미성분들이 어휘부의 항목의 의미자질들로 표시되었다가 의미해석에 쓰이게 된다.

추상적인 복합술어가 기저구조에 설정되고 변형규칙들에 의해 이에 대응되는 어휘항목에 맺어지는 방식이 생성의미론식이다. 한편, 논리적 의미론에서는 意味公準(meaning postulate)이 서로 다른 論理外的 어휘항목들 간의 어떤 논리적 含意관계를 보이기 위해 설정된다. 다음 예를 보자.

(14) 'Jack이 bachelor이면, 그는 결혼해 있지 않다.' (not married) (Carnap, 1947)

(15) John은 bachelor다. Sylvia의 male relative 모두가 결혼했다(married). 그러므로 John은 Sylvia의 uncle이 아니다(Partee, 1978).

문장 (14)가 진리임을 보장하는 데에는 'bachelor'와 'married'와 같은 論理外的인 단어들의 의미가 관련되어 있으며²⁾, 論證 (15)의 타당성을 보장하는 데에는 'bachelor', 'male', 'relative', 'married' 및 'uncle' 사이의 관계들이 필수적이다. 다음과 같은 意味公準을 들 수 있다.

(16) $\forall x (Bx \rightarrow \sim Mx)$

Katz는 의미공준 방식이 약간의 外延論的 결합을 지니고 있으며 Katz의 의미이론의 未熟

2) 이 경우는 'Fido is black or Fido is not black'에서처럼 논리어만 알면 참임을 보장할 수 있는 경우와 구별된다.

한 상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Katz & Nagel, 1974), Lakoff (1972)는 의미공준의 쓰임새에는 경험적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휘분해의 장점들, 예컨대 일반성의 포착과 어휘항목의 구조적 요소를 밝힘으로써의 설명 등을 의미공준에 통합시키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는 Quine이 look for를 try to find로 분석한 예시도 암시되고 Dowty의 다음과 같은 의미공준에서 시도되었다.

(17) $\forall \mathcal{P} \forall x \square [\text{kill}'(x, \mathcal{P}) \rightarrow \mathcal{P}(\bar{y} [\mathcal{E} \mathcal{P}[\mathcal{P}(x) \text{ CAUSE BECOME } \neg \text{alive}'(y)]])]$

Carnap은 애초에 의미공준의 原子述語와 관련된 어떠한 비교언어적인 또는 보편적인 개념들의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았으며, '논리학자들이(자기네 체계를 위해) 어떠한 의미공준들을 취해야 할 것인가'에 관심이 없었다. 그에게는 의미공준의 내용은 결정의 문제이고 사실에 관한 지식의 문제가 아니었다. 예컨대, 'black'과 'raven'(갈까마귀)에 해당되는 述語를 각각 'BI'와 'R'로 잡기로 할 때, 'black'의 의미는 꽤 분명하지만, 'raven'의 의미는 일상 언어에서 애매한 편이다. 그러나 內省이나 統計로 'raven'이 'black'을 늘 함의하는지를 조사할 필요는 없고 다만 'R'과 'BI'를 자기 체계 안에서 논리적 함의관계를 맺어주고자 하는지의 여부를 작정하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맺어준다고 작정하면 $\forall x(Rx \rightarrow BIx)$ 를 체계 안에 공준으로 두고 그렇지 않다고 작정하면 안 두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Carnap이 생각한 의미공준은 체계내에서의 작용만 중요시하고 경험적 사실의 뒷받침을 등한히 하고 있다고 본다. 언어학의 의미론에서는 'kill'이 'CAUSE to BECOME NOT ALIVE'를 함의한다고 할 때(생성의미론에서처럼) 과연 전자가 후자를 함의하는지의 경험적 사실 자체가 소중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Katz & Nagel (1974)은 (16)과 같은 의미공준에서 'B'와 'M'이 각각 특정 자연언어인 영어의 단어 'bachelor'와 'married'의 생략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특정 언어에서 독립된 보편적인 추상개념들의 이름의 생략으로 보아야 할지 Carnap의 의도를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Carnap 자신은 전자의 해석을 의도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의미해석의 模型理論의 方法의 확대로 어떤 단어의 의미가 그 단어가 들어 있는 문장의 진리조건을 결정하는 데 역할을 하는지의 여부를 좀더 분명히 가리게 되었으며, 그러한 경우의 그 단어의 의미를 규정하는 방법이 Grice (1975) 등에 의해 제시되고 Karttunen & Peters (1979) 등에 의해 형식화되었다. 다음 문장 (18)에서 단어 even은 문장 (18)의 진리조건적 의미에는 기여하지 않는다.

(18) Even Bill likes Mary.

(19) Bill likes Mary.

그러므로, 진리조건적 의미면에서는 (18)과 (19)가 값이 같다. 그러나 (18)의 even이 문장의 의미에 기여하는 바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20) Other people besides Bill like Mary.

(21) Of the people under consideration, Bill is the least likely to like Mary. (Karttunen & Peters, 1979:12)

따라서, even의 함축의미 evenⁱ의 의미공준(${}^{\wedge}\text{even}^i = \lambda \mathcal{P} \lambda \mathcal{Q} \mathcal{P} \{ \hat{y} [\mathcal{I}x[*\{x\}] \wedge \neg [{}^v x = {}^v y]] \wedge \mathcal{Q} \{x\}] \wedge \forall x [[*\{x\}] \wedge \neg [{}^v x = {}^v y]] \rightarrow \text{exceed}^{\circ} (\text{likelihood}^{\circ} ({}^{\wedge}\mathcal{Q} \{x\}), \text{likelihood}^{\circ} ({}^{\wedge}\mathcal{Q} \{y\}))] \}$)을 두고, 문장 (18)이나 또는 다음 문장 (22)의 함축표현(implicature expression, 여기서 Bill-likes-even-Maryⁱ)의 부분에 넣는다.

(22) Bill likes even Mary.

문장 (22)의 함축표현의 부분을 이루는 접속성분(evenⁱ (${}^{\wedge}\text{Mary}^{\circ}$, \hat{x}_0 Bill-likes-him₀^o))이 얻어지고 의미공준에 따른 이의 同値의 표현($[\mathcal{I}x[*\{x\}] \wedge \neg [{}^v x = m]] \wedge \text{like}_{*}^{\circ}(b, {}^v x)] \wedge \forall x [[*\{x\}] \wedge \neg [{}^v x = m]] \rightarrow \text{exceed}^{\circ}(\text{likelihood}^{\circ}({}^{\wedge}\text{like}_{*}^{\circ}(b, x)), \text{likelihood}^{\circ}({}^{\wedge}\text{like}_{*}^{\circ}(b, m)))]$)이 나와 형식화된 even의 함축의미(풀어서 There are other x under consideration besides Mary such that Bill likes x, and for all x under consideration besides Mary, the likelihood that Bill likes x is greater than the likelihood that Bill likes Mary)가 가능해진다. 이와 같이 진리조건적 의미가 아니면서도 어휘항목에 늘 따르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고 경험적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는 常例의 함축(conventional implicature)을 논리기호로 記述하는 가능성이 엿보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도 두 갈래의 의미분석의 경향이 만날 수 있음을 본다. 그리고 어휘적 의미와 명제적 의미 사이에 밀접한 상호작용이 있음을 본다. 자연언어의 분석에 있어서 이와 같은 의미공준 방법이 유용하려면, 여러 言語에 걸치는 일반화된 의미공준의 가능성도 모색되어야 하겠으며, 설정되는 함의관계가 경험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5. 다음은 명제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문장들의 문제를 잠깐 살펴기로 하자. 이 문제는 심리학적 접근을 피치 못하게 한다는 논의가 Partee (1979) 등에 의해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다음 두 문장에서 내포문들은 서로 同値일지라도 代置가능하지 않다는 문제가 형식의미론 쪽에 있다는 것이다.

(23) Mary believes that P.

(24) Mary believes that Q.

여기서 P와 Q가 同値라 할지라도 代置不可能한 것은 belief 백락 때문인데, 여기 연관된 심리적 요인들은 화자에 따라 또 순간 순간에 따라 변하는 것이어서 도외시할 수 없으면서도 다루기가 대단히 힘든 문제로 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不可能한’ 가능세계의 문제(Hintikka, 1969, 1975; Cresswell, 1973)가 여러모로 탐구되고 있다. Hintikka (1969)는 ‘존이 S라고 믿는다’라는 믿음의 단언은 연관된 가능세계의 집합을 두 부류로 가른다고 제의

한다. 즉 존의 S에 대한 믿음과 합치되는 세계와 그렇지 않은 세계들의 두 부류로 나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Cresswell (1982)은 ‘두 명제는 같은 가능세계들에서 참이면 그리고 그 때에 한해서 同値이나 불가능한 세계들에서 다르다면 구별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이와 같은 해결책이 우리로 하여금 불가능한 세계가 마치 실세계인 것처럼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고, 태도표현을 上位言語的으로 다룰 것을 제의하고는 있으나, 자신의 해결책이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라고 시인한다. 다음과 같은 예에서 화자의 꿈 세계(화자가 꿈꾸는 것과 맞아 들어가는 세계) 내의 화자의 두 짝(counterpart)이 문제되고 交叉合一化(cross-identification)의 원리가 논의된다.

(25) I dreamt that I was Brigitte Bardot and that I kissed me. (Lakoff)

‘불가능한 세계’와 관련하여 모든 가능세계에서의 外延을 고려하지 말고 화자의 꿈 또는 Alice의 소망과 맞아 들어가는 모든 세계들의 집합에서의 外延을 고려하자는 제의가 있다. 그밖에도 맥락 변항에 기반한 맥락 의존의 내포논리의 체계들 Hausser (1979)가 제의하고, Barwise가 ‘상황의미론(situation semantics)’을 탐구하여 위와 같은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

한편, 좀 더 심리학적인 접근 방식이 Johnson-Laird(1982)에 의해 제의되고 있다. 그는 개인의 믿음, 소원, 희망 및 그 밖의 명제에 대한 태도들이 정신적 모형(mental model)에 표시될 수 있다고 본다. 정신적 모형의 ‘구성적(constructive)’ 방식에 따르면, 설정된 ‘가능한’ 개체들을 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걸쳐 合一化시키는(identifying) 문제가 별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Lakoff의 (25)와 같은 문장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신적 모형은 부분적 모형이며, Barwise & Perry (1980)와 Barwise (1981)에서도 주장되듯, 모형 이론적 의미론도 부분적 모형을 쓰고 있고 ‘실세계의 부분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로 모든 가능세계와 모든 가능한 개체들에 관해 말하는 것’이라는 입장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심리적 접근과 형식적 접근의 두 갈래 경향이 부딪치는 영역은 많아 ‘知覺(perception)의 논리’가 있고(Hintikka, Barwise 참조) 또 ‘映像(imagery)의 논리’도 논의되며(Kosslyn, 1981 참조), 話行과 관련된 명령, 질문, 믿음, 규범의 논리가 각각 발전하고 있다.

2.6. 가능한 인간언어의 의미론을 성격짓는 데에는 心理的인 制約이 필요하다. 경험과학으로서의 언어학적 의미론은 自足的인 形式體系 뿐 아니라 과학적인 설명을 요구한다.

물론 우리는 가능한 인간언어의 의미론도 자연언어만이 아닌 형식언어의 의미론까지를 포용하는 일반적인 의미이론의 준거 틀 속에서 보고자 한다. 따라서 형식적인 분석의 결과를 심리적인 제약에 대한 분석의 결과와 함께 우리의 의미론에 편입시켜야 할 것이다. 그 때에 우리는 가능한 인간언어의 의미이론을 명시성과 동시에 경험상의 바탕 위에서 평가하고 불가능한 인간언어의 의미이론을 제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 言語學에 있어서의 精神主義的 說明

생성이론 이전의 구조주의 언어학, 특히 Bloomfield와 Harris 등이 대표가 되는 미국 구조주의 언어학에 있어서는 발화(utterances)의 분절화(segmentation)와 분류를 위주로 하는 분류론적(taxanomic) 입장이 '과학적' 방법으로서 군림하였다. 그것은 관찰 가능한 물리적 사건만이 과학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 입장이었으며 이에 따라 발화를 수집하여 음소, 형태소, 구성성분, 문장 등을 분절하고, 분류하는 작업이었다. 구조주의자들은 모든 언어 요소가 궁극적으로 물리적 분절들로 환원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언어 분석의 전 과정을 통해 정신적 능력(mental capacities)이나 정신적 과정에 대해서는 고려하기를 거부한다. 이들은 이미 '존재하는' 단위요소들을 엄밀한 절차에 따라 발견해 나가는 발견 절차(discovery procedure)를 중요시 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엄밀한 발견 절차의 증시는 첫째로, 언어학의 연구 영역을 좁히고 둘째로, 깊이 있는 설명을 불가능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하겠다. 이에 Chomsky는 종래의 구조주의 언어학의 결함을 극복하고 생성이론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언어이론은 실제적인 행동에 기저(基底)하는 정신적인 실재를 발견하는 데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정신주의적이다'(Chomsky 1965)라고 밝혔다. 다시 말하면, 언어이론은 언어능력의 직접적인 반영인 언어수행의 자료로부터 기저적인 규칙체계를 결정하는 문제라고 본 것이다. 여기서 '언어능력'은 단순히 항목들의 체계적인 在庫(inventory)로서의 *langue*의 개념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Chomsky가 말하는 정신주의는 Bloomfield가 기계주의(Mechanism)와 대립시켜 양분했을 때의 정신주의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못 박고 있다. Chomsky는 단순히 자기가 말하는 정신주의는 이론과 설명에의 관심을 뜻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Bloomfield가 공격한 정신주의는 첫째, 인간행위의 변이가능성이 인과법칙을 따르지 않는 *spirit, will, mind* 등 비물리적인 인자의 간섭에 의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며 둘째로, 대상사건의 시·공간에서 누구에게나 관찰가능해야 한다는 행동주의(behaviorism), 그것들이 시·공간의 coordinate들에 자리잡아야 한다는 기계주의, 확고한 조작절차를 가능케하는 始發서술 및 예측만을 사용해야 된다는 조작주의, 엄밀한 정의에 의해서만 도출될 수 있는 語辭(term)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물리주의(physicalism)의 방법론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건들을 다룬다는 것이다. 생성이론의 정신주의는 심·물(psychophysical) 이원론을 용인하지는 않는다. 언어구조를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것으로 성격짓는 것과 이러한 구조를 實例化시키는 뇌기계(brain mechanism)로서의 물리적 체계 사이에는 물론 구분이 있지만 후자에 대한 연구는 신경생리학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정신적인 것과 물리적인(physical) 것 사이의 관계는

오히려 현대 과학철학에서 대체로 받아 들이는 동일성(identity)의 관계(Feigl 1958 참조)인 것으로 생성이론에서는 보는 듯하다.

두뇌 속에 인간의 언어능력에 관한 추상적이고 대단히 복잡한 機制가 있는 것으로 가설을 세우고 출발하는 것은 다른 과학 분야에서 이론 구성상 가설을 설정하는 점과 별 차이가 없다 하겠다. 이러한 시도는 종래의 관찰 불가능한 유기체 내의 작용 인자를 '검은 상자(black box)'라 하여 禁忌로 보았던 입장과는 대조적이다. 언어구조에 관한, 그리고 그것의 습득에 관한 內在的 機制는 실체적(substantive) 및 형식적(formal) 언어보편소(linguistic universals)에 관한 가설을 포함하고 간결성(simplicity), 일반성(generality), 自然性(naturalness) 등 이론 평가의 척도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따라 어린이가 언어 환경에서 주어지는 약간의 일차적인 언어 자료에 근거하여 나름대로의 가설로서의 규칙을 설정하고 그 설정된 규칙들의 체계로서의 문법을 구성하여 이에 입각하여 발화함으로써 실세계에서 시험할 기회를 갖고 그 시험 결과에 따라 규칙을 수정해 나가기도 한다. 이렇게 하여 구성되는 규칙들의 체계를 내면화(internalize)함으로써 언어의 구조를 습득하는 것이다. 종래의 전통문법이나 Jakobson의 보편적 자질(universal feature) 이론은 실체적 보편소의 탐구에 이바지했다고 할 수 있겠으나 문법규칙들과 규칙의 제약(constraint)에 관한 형식적 보편소의 탐구에는 별로 이바지하지 못했다고 보겠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생성이론에 기초한 현대의 언어학은 그 목표를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機制의 명시적인 설명에 두고, 현대 과학의 방법론을 그대로 쓰고 있다. 다만, 방법론의 문제라기보다 조사 技術상의 문제로서, 규칙 설정을 위한 문장의 문법성 판단에 있어서 응답 유도(elicitation) 실험 내지 사회언어학적 조사 방법을 필요에 따라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Chomsky는 모국어 사용자의 직관적 내성에만 의존하고, 이 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언어에 있어서 문장을 이루는 구조가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이지만 그 구조의 충분한 이해를 위해서도 언어 사용을 위한 말하는 이와 듣는 이 사이의 상호 작용 및 맥락 속에서의 언어 사용에도 관심을 넓혀야 할 것으로 본다.

참 고 문 헌

- Barwise, J. (1981) 'Scenes and Other Situations', *Journal of Philosophy* 78.7.
- Barwise, J. & J. Perry (1980) 'The Situation Underground', J. Barwise & I.A. Sag (eds.), *Stanford Working Papers in Semantics I*.
- Berlin, B. & P. Kay (1969) *Basic Color Terms: Their Universality and Evolu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Carlson, C. N. (1977) 'A Unified Analysis of the English Bare Plural', *Linguistics and Philosophy* 1. 3.
- Carnap, R. (1947) *Meaning and Necessity*, Chicago U. Press.
- Chomsky, N. (1965)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The MIT Press, Cambridge, Mass.
- Cohen, D. (1974) *Explaining Linguistic Phenomena*, Hemisphere Publishing Corporation, Washington D.C.
- Cresswell, M. J. (1982) 'The Autonomy of Semantics', in S. Peters & E. Saarinen (eds.) *Processes, Beliefs, and Questions*, D. Reidel Publishing Co., Dordrecht.
- Dowty, D. R. (1979) *Word Meaning and Montague Grammar*, D. Reidel, Dordrecht
- Dowty, D. R., R. Wall & S. Peters (1981) *Introduction to Montague Semantics*, D. Reidel, Dordrecht.
- Dretske, F. I. (1974) 'Explanation in Linguistics', in D. Cohen (ed.)
- Farkas, D., W. M. Jacobsen, and K. W. Todreys (1978)(eds.), *Papers from the Parasession on the Lexicon*, Chicago Linguistic Society.
- Feigl H. (1958) 'The 'Mental' and the 'Physical'', in H. Feigl *et al.* (eds.), *Minnesota Studies in the Philosophy of Science II*.
- Fillmore, C. J. (1974) 'The Future of Semantics', in R. Austerlitz (ed.), *The Scope of American Linguistics: Papers of the First Golden Anniversary Symposium of the LSA Held at the U.M., Mass., Amherst*.
- Fillmore, C. J. (1975) 'An Alternative to Checklist Theories of Meaning,' *BLS* 1, 123-131, Berkeley Linguistic Society.
- Gazdar, G. (1979) *Pragmatics*, Academic Press, New York.
- Greenbaum, S. & R. Quirk (1970) *Elicitation Experiments in English: Linguistic Studies in Use and Attitude*, Univ. of Miami Press, Coral Gables, Florida.
- Greenfield, P. M. & P. G. Zukow (1978) 'Why Do Children Say What They Say When They Say It?: An Experimental Approach to the Psychogenesis of Presupposition', in K. E. Nelson (ed.) *Children's Language I*, Gardener Press, New York.
- Haiman, J. (1978) 'Conditionals are Topics', *Language* 54:3.
- Hausser, R. R. (1979) 'A Constructive Approach to Intensional Contexts', mimeo., Stanford University.
- Hempel, C. G. (1966) *Philosophy of Natural Science*, Prentice-Hall, Englewood Cliffs, N.J.
- Hintikka, J. (1971) 'Semantics for Propositional Attitudes' in L. Linsky (ed.), *Reference and Modality*, London, Oxford Univ. Press.

- Johnson-Laird, P. N. (1982) 'Formal Semantics and the Psychology of Meaning', in S. Peters & E. Saarinen (eds.).
- Karttunen, L. & S. Peters (1979) 'Conventional Implicature,' in Choon-kyu Oh & David A. Dinneen (eds.), *Syntax and Semantics 11: Presupposition*, Academic Press, New York.
- Katz, J. J. (1964) 'Mentalism in Linguistics', *Language* 40. 2.
- Katz, J. J. & R.I. Nagel (1974) 'Meaning Postulates and Semantic Theory' *Foundations of Language* 11. 3.
- Kiparsky, P. & C. Kiparsky (1970) 'Fact', in M. Bierwisch & K. Heidolph (eds.), *Progress in Linguistics*, The Hague, Mouton.
- Kosslyn, S. M. (1981) *Image and Mind*, Harvard U. Press.
- Lakoff, G. (1972a) 'Linguistics and Natural Logic', in D. Davidson & G. Harman (eds.), *Semantics of Natural Language*, D. Reidel, Dordrecht.
- Lakoff, G. (1972 b) 'Hedges: A Study in Meaning Criteria and the Logic of Fuzzy Concepts,' *CLS* 8, Chicago Linguistic Society.
- Langacker, R. W. (1982) 'Space Grammar, Analysability, and the English Passive,' *Language* 58.1.
- Lee, Chungmin (1982) 'Conditional Constructions in Korean', Paper read at the XIIIth International Congress of Linguists, Tokyo.
- Osgood, C. E. (1971) 'Where do Sentences Come from' in D.D. Steinberg & L.A. Jacobovits (ed.), *Semantics: An Interdisciplinary Reader in Philosophy, Linguistics, and Psych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London.
- Partee, B. H. (1979) 'Semantics—Mathematics or Psychology?' in R. Bauerle, U. Egli & A. von Stechow (eds.), *Semantics from Different Points of View*, Berlin, Springer-Verlag.
- Partee, B. H. (1978) *Fundamentals of Mathematics for Linguistics*, Greylock, Stamford, Conn.
- Peters S. & E. Saarinen (eds.) (1982) *Processes, Beliefs, and Questions*, D. Reidel, Dordrecht.
- Putnam, H. (1975) 'The Meaning of "Meaning"', in K. Guderson (ed.), *Language, Mind and Knowledge*, Univ. of Minnesota Press.
- Rosch, E. (1977) 'Human Categorization', in N. Warren (ed.), *Studies in Cross Cultural Psychology* 1, Academic Press, London.
- Ross, J. R. (1972) 'The Category of Squish: Endstation Hauptwort' *CLS* 8.
- Sanders G. A. (1974) 'Issues of Explanation in Linguistics', in D. Cohen (ed.).
- Stalnaker, R. C. (1980) 'Review of G. Gazdar (1979) *Pragmatics*', *Language* 56.
- Whitaker, H. (1976) 'Is the Grammar in the Brain?' in D. Cohen (ed.).

《Abstract》

Scientific Explanation in Linguistics

Chungmin Lee

The theory of generative grammar in linguistics is pursuing scientific explanation by setting up phrase structure rules to derive deep structure strings which are transformed into surface structure utterances. The whole process involves the deductive-nomological model.

There are two approaches to semantic analysis for explanation; logical and psychological.

The logical position of semantics aims at the characterization of the notions of truth of a sentence relative to a model and of entailment between sentences. It is concerned with formal precision, consistency and elegance, not with psychological processes. The psychological position, on the other hand, tries to treat meaning in terms of all aspects of cognition. For the most satisfactory explanation of semantic phenomena, both positions are necessary and must be synthesized or integrated.

Major areas of linguistic meaning involve both logical and psychological investigations. The treatment of durational expressions with the universal quantifier is insufficient and there must be consideration of how we perceive the reality and of the perceived relevant psychological time. Presupposition is an area in which psychological investigation challenged the two-valued logic and made the notion of truth-value gap possible. Emotives are stronger in factive presupposition than epistemic verbs such as 'discover,' 'realize'. In Korean the verb 'al' (=know) is used with or without factive presupposition of the complement depending on whether the complement is followed by the object marker (then presupposed) or the directional marker. Different degrees of presupposition cannot be ignored in semantic investigation.

The intensions of basic lexical items are assumed as *givens* in Montague's semantic rules. But the meaning of a lexical item crucially involves the psychological process of categorization. Even Putnam proposes the notion of a 'stereotype' of a natural kind term. Rosch's investigation shows that categories, particularly basic level categories, are not arbitrary and are internally structured by 'gradients of representativeness'. In logical

semantics, meaning postulates are used to show implication between nonlogical lexical items. Carnap originally did not think of cross-linguistic concepts involved in atomic predicates of meaning postulates and did not consider factual knowledge. However, for the meaning postulate method to be useful, it must have an empirical basis and take into account the psychological process of categorization. The problem of propositional attitude sentences also calls for psychological explanation. Formal semantics has not been quite successful in determining the truth conditions of propositional attitude sentences. There are some recent approaches to this problem and they involve certain psychological aspects.

Psychological constraints are needed to characterize the semantic theory of human languages. Linguistic semantics as an empirical science calls for scientific explanation, not just a self-contained formal system.

The 'mentalism' advocated by generative grammarians purports to get interested in theory and explanation rather than in discovery procedures and taxonomy. It is not the mentalism in the dualistic sense of the term.